

# 도 중기 정책자금 지원 하락폭 커

### 7월 기준 3.98%로 2년간 약 1%p 줄어... 수도권 비중은 41.4%로 5.9%p 늘고 R&D 지원도 집중

정부가 전북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쏠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지원하는 정책 자금과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송기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

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중은 지난 2년간 약 5.9%포인트 늘었다.

지난 2014년 35.5%에서 지난해 38.4%를 기록한 후 올해 41.4%(7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반면 전북은 2014년 4.95%에서 올해 7월 기준 3.98%로 떨어지며 2년간 약 1%포인트 줄었다.

송기현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동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

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기업 수를 감안해도 너무 높으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조952억원을 R&D 지원금으로 썼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1조1,264억원을 사용했다.

수도권 비중이 무려 53%에 달한 셈

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29.5%(인 6,184억원)를 받았고 서울은 4,135억원(19.7%)을 지원받았다.

반면 제주는 102억원(0.5%), 울산은 371억원(1.6%), 전남은 349억원(1.7%)을 받았다.

박정 의원은 "지역에 따라 R&D 예산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은 지역별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 감염병관리본부 공식 출범

전북도 감염병관리본부가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 감염병관리본부는 이날 전북대학교 교병원 모약홀에서 출범식 및 기념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감염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수준 향상'과 '감염병 감시체계 지원 및 통계 분석',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감염병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위기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감시체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고민형 기자



**스마트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전북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및 R&D센터 개소식이 29일 군산(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이성수 원장,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타타대우상용차 등 16개 기관 참석자들이 스마트융합 얼라이언스 협력 협약식을 갖고 있다.

## 자살·감염 사망자 수 감소 추세

전북지역 자살·감염병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495명으로 2014년(535명)보다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8.8명에서 26.6명으로 2.2명·7.6% 하락했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13명이 감소한 수치다.

자살률과 감염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도는 정신건강증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한 도는 2년 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내 전 시군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했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법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최근 5년간 집회현장 전북도민 부상자 44명

### 전국 4번째로 많아... 인제군 "부상자 구호 위해 집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으로 경찰의 강경대응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현장 등에서 전북도민의 부상자 발생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제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7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59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7명, 2013년 58명, 2014년 217명, 2015년 192명, 2016년 6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6명, 경남 113명, 전북 4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주는 단 한명의 부상자도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유형별로는 시민이 550명(92.1%), 경찰 47명(7.9%)으로 시민이 경찰보다 12배 정도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의 정도'를 부상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민 경상이 505명으로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해 압도적 다수였고, 경찰 경상과 시민 중상이 각각 45명(7.5%), 경찰 중상이 2명(0.3%)으로 뒤를 이었다.

인제군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쓴 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 끝내 사망했다"며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구호의 보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이어 "관할경찰서장과 집회·시위 주최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부상자 발생 시 해산활동을 중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부상자 구호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면서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강화함으로써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만 75세 이상 내달 4일부터... 65세 이상 10월 이후부터

전북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도내에는 약 33만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백신 수급 불균형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 시작 날짜가 다르다. 이에 만 75세 이상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고, 만 65세 이상은 10월 이후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을 알고 싶으면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10월 본격 가동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정부기업지원시설이 9월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지원센터 및 임시연구소 이전 등 기업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달 초 본격 가동된다.

정부기업지원시설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임대형 공장), 지원센터 등 총 6개의 연구, 생산, 사무 지원분야로 나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업지원시설은 2만8,705㎡(8,683평) 규모로 산업단지 입주 식품기업에게 R&D, 생산, 품질관리, 포장, 유통,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수출, 인력양성·유치, 산학연 커뮤니티 운영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 기업·연구소를 one-stop 지

원하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는 기능성 평가를 one-stop 지원하고 식품기업과 공동 R&D 수행으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식품품질안전센터는 기업에서 의뢰한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검사 분석 및 기업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패키징센터는 패키징 분야에 대한 분석시험, 컨설팅, 패키징 신기술 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패키징시스템을 준비하여 맞춤형 기업 컨설팅 등 현장 예로기술을 해소한다.

파일럿플랜트는 기업맞춤형 시제품 소량 생산, 위탁 가공 생산 및 공정 표준화실험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상품화를 지원하고, 식품벤처센터는 HACCP, GMP 등 식품안전시설 구축에 적합한 임대형공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중견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시설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 국제가금류전문센터 추진 간담회

### 네덜란드 와겐닝겐대학 연구원 3명, 실무진들과 의견 나눈다

네덜란드 와겐닝겐대학 련신잉(Xin-Ying, Ren) 박사 등 3명이 지난 9월 27일 익산시를 방문해 지난해 바네벨트시와 익산시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던 국제가금류전문센터에 대해 익산시, 하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유관기관 실무진들과 의견을 나눴다.

방문단은 "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립 추진 협력"이 한국 가금류 산업의 해결 과제 또는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네덜란드 PEC(가금류전문센터)

와 한국측 유관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향후 국제가금류전문센터(PEC) 설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 "지방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이 작은 것부터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방문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국무총리 일행의 농업부문 한국사절단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